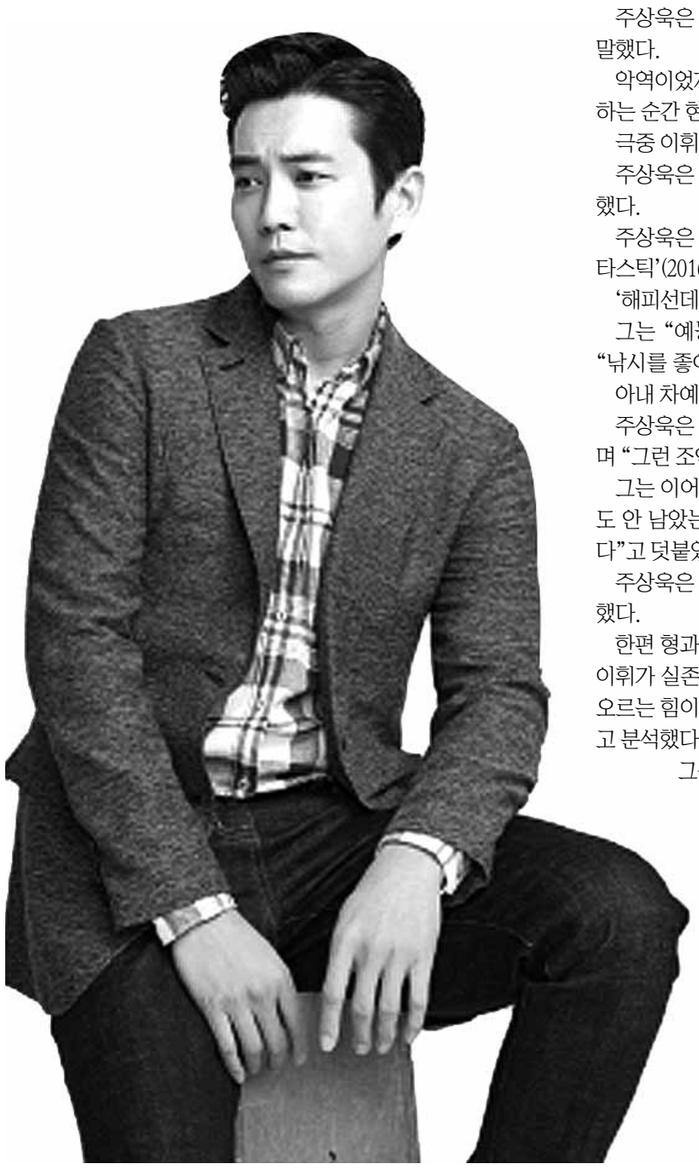
“단순 악역 아니라 끌려…인생 캐릭터 될 듯”

최근 종영 드라마 ‘대군’ 출연 주상욱

시청률 5.6%…TV조선 최고 기록 경신

아내 차예련 조언 덕분에 힘얻어 연기

“예능 ‘도시어부’ 꼭 출연하고 싶어요”



“이강은 단순한 악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끌렸어요.”

최근 종영한 TV조선 ‘대군-사랑을 그리다’(이하 대군)에서 진양대군 이강 역할을 한 배우 주상욱(40)을 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만났다.

주상욱은 “짝사랑하는 역할은 처음이라 신선했다. 그래서 시청자들의 동정표도 더 얻은 것 같다”면서도 “이강의 집착이 개인적으로는 용납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데뷔한 지 20년이 됐는데 했던 역할 중 이강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들 것 같다”며 “앞으로 이런 캐릭터를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행복했다”고 덧붙였다.

TV조선이 3년 만에 내놓은 드라마인 ‘대군’은 젊은 세대 관심을 끌며 마지막회 시청률 5.627%를 기록해 TV조선 최고 기록을 세우며 종영했다.

주상욱은 “시청률이 5% 넘으리라 생각을 못 해서 마지막회 시청률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악역이었지만, 촬영 현장에서는 ‘분위기 메이커’라는 동료 배우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컷’ 하는 순간 현실로 돌아와서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한다”고 웃었다.

극중 이휘 역을 맡은 윤시윤에 대해서는 ‘진지한 스타일’이라고 평가했다.

주상욱은 “윤시윤 씨의 진지함이 함께 연기하는 상대에게도 플러스가 됐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주상욱은 1998년 데뷔해 드라마 ‘자이언트’(2010), ‘신들의 만찬’(2012), ‘굿 닥터’(2013), ‘판타스틱’(2016)등에 출연했다.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2009~2013)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했다

그는 “예능이 연기할 때보다 부담도 덜하고 너무 재밌다. 앞으로도 계속할 것 같다”며 “낚시를 좋아해서 게스트로 나가고 싶은 프로그램은 ‘도시어부’다”고 강조했다.

아내 차예련에 대한 말도 했다.

주상욱은 “아내가 시청자 입장에서 제 눈에는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줬다”며 “그런 조언을 들으면 촬영장에 가서도 신경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내가 지금 임신 중인데도 한 번도 투정을 부린 적이 없다”며 “출산까지 두 달도 안 남았는데 매일매일이 떨리고 기대된다. 남은 시간은 그동안 못 해줬던 것을 다 해주겠다”고 덧붙였다.

주상욱은 “배우로서의 목표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로망을 꾸준히 갖고 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형과 왕권·사랑을 놓고 대립하는 은성대군 이휘 역할을 배우 윤시윤(32)은 “은성대군 이휘가 실존인물인 안평대군을 소재로 한 사극이지만 중간에도 시청자들이 유입돼 시청률이 오르는 힘이 됐다”며 “세계관이 설명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판타지를 펼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군’을 통해 제가 힘을 줘서 찍는다고 해서 결과물이 잘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제 몫을 해내고 나머지는 드라마를 함께 만드는 분들께 맡기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시윤은 이휘 캐릭터에 대해서는 “캐릭터와 사랑에 빠져서 연기했다. 대본이 나오지 않아도 그 다음 이휘의 감정을 유추할 수 있었다”며 “결말도 제가 꿈꿔왔던 방향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같이 호흡을 맞춘 배우 진세연과 주상욱에 대해서는 칭찬을 늘어놓았다.

윤시윤은 “매우 추운 날 촬영을 하는데 진세연 씨가 보조출연자들에게 핫팩을 갖다 줬다. 정말 착한 사람이다”며 “그가 맡은 성자현 캐릭터와 똑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상욱 씨는 엣지있고 깔끔한 전형적인 남자주인공 연기를 한다”며 “카메라가 꺼지면 너무 재밌는 형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세월호 뉴스+이영자 어묵 먹방’ 합성 논란

승승장구하던 ‘전지적 참견 시점’ 위기 봉착

최승호사장 사과에도 파문 확산

MBC 긴급 조사위원회 구성

정규편성 후 승승장구하던 MBC TV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이 예상치 못한 위기에 봉착했다.

세월호 참사 뉴스 특보 화면을 프로그램에 삽입해 논란이 인 후 두 차례 사과에도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최승호 MBC 사장이 직접 사과하고 이영자는 녹화 불참 의사를 밝히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는 모양새다.

‘전지적 참견 시점’ 제작진은 지난 5일 방송에서 이영자가 어묵을 맛있게 먹는 장면을 재밌게 뉴스 보도 형태로 편집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특보 화면을 사용해 물의를 빚었다.

특히 과거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어묵’이라고 모욕했다가 공분을 산 사례가 있어 이번 논란은 더 커졌다. 또 지난 경영진 때 일이기는 하지만 MBC에서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베’(일간 베스트저장소) 자료들을 화면에 사용해 논란이 된 적이 여러 번 있었기에 ‘괘씸죄’도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비난이 거세지자 제작진은 9일 공식입장을 내고 “편집 후반작업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했다”며 관련 영상 삭제와 진상조사를 벌이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비판이 식지 않자 MBC는 재차 사과문을 내고 “긴급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이어 최승호 MBC 사장이 직접 SNS에 글을 올려 “관련자의 책임을 묻고 유사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MBC는 지난해 12월 정상화 이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과거 왜곡 보도를 반성하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께 사과드린 바 있다. 그런데 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해 매우 죄송스럽고 참담하다”고 사과했다.

게다가 후폭풍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듯 보인다.

일단 사건 당사자인 이영자가 이번 논란으로 큰 충격을 받아 다음 녹화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제작진에게 전달함으로써 방송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이영자는 최근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남다른 ‘먹방’(먹는 방송)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았기에 이번 사태에 더욱 상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자 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영자 씨가 현장에서 방송분을 볼 때는 해당 내용이 없었는데 후반 편집 후 생겼다”며 “본인이 이번 사태에 굉장히 놀라 일단 다음 녹화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다음 녹화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전지적 참견 시점’ 제작진과 이영자 소속사 양측은 현재 모두 긴급 대책회의 중으로, 입장이 정리되면 다시 밝힐 예정이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전생에 웬수들 (재)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백미인생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TV소설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징비록(재) 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슈츠(재)		00 애니갤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05 인형의 집 (재)	00 12 MBC 뉴스 20 데릴남편 오작두(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톡톡 보험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공룡 메카드		30 문화사색	55 닥터 365
2	20 안녕! 괴발개발 시즌2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20 꾸러기 식사교실 50 익스트림 서프라이즈	00 뉴스브리핑
3	00 천상의 컬렉션(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10 MBC스포츠 UEFA 챔피언스리그	
4	00 4시 뉴스집중	00 누가 누가 잘하나		00 여행배틀 로그인 코리아 55 지식 통조림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KBS광주 연중특별기획 남도 스페셜	00 생일왕국의 프린세스 프링 2 15 토이캅 2 30 주간연예수첩	00 뉴스콘서트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정글의 법칙(재)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인형의 집	15 전생에 웬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8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속보이는TV 인사이드	55 실화탐사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KBS 대기획 UHD 순례 4부작 55 UHD 숨터	00 슈츠	00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00 스위치-세상을 바꿔라
11	00 KBS 뉴스라인 40 이웃집 찰스(재)	10 해피투게더 1~2부	10 이불 밖은 위험해	10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1~2부
12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스포츠 다이어리 50 2018 가정의 달 특집 앙코르 휴먼다큐 사랑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의 길
〈북한의 의료실태〉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
〈문명의 교차로 파키스탄 4부
알렉산더 대왕의 도시 젤룸〉
07:00 공룡탐험대 고고다이노
07:30 띠띠뽀 띠띠뽀(재)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딩동댕 유치원 1~2
08: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8:45 랄랄라 뿌우
09:00 뚝딱맨
09:15 두다다쿵(재)
09:30 몰랑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바지락 두부조림과 오이나물〉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3:00 지식채널e
13:10 장수의 비밀
〈공례 할매, 4대를 부탁해〉
13:40 다큐 시선
14:30 레인보우 루비
15:00 호기심 소녀 도트.
15:15 파프리카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쥬
16:30 랄랄라 뿌우(재)
16:45 딩동댕 유치원1~2(재)
17:1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사이언스타 Q
19:30 EBS 뉴스
19:50 배워서 남줄랩
〈뇌 이놈, 구두쇠야!〉
20:40 세계테마기행
〈오만 가지 매력 오만 4부
오래된 도시〉
21:30 한국기행
〈시골식당 4부
할머니는 밥도둑〉
21:50 다큐 시선
〈잘 찍고 계십니까?〉
22:45 다문화 고부열전
〈돈 벌고 싶은 며느리,
엄마가 된 시어머니〉
23:55 EBS 스페이스 공감
25:05 지식채널e
25:10 과학 다큐-비욘드(Beyond)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0일(음 3월 25일 壬寅)

子 36년생 특별히 유념해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48년생 초심을 잃지 않아야만 미래의 형세를 제대로 볼 수 있다. 60년생 길조가 따른다. 72년생 편차가 심하리라. 84년생 제반 여건을 고려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 행운의 숫자 : 78, 25

丑 37년생 신중하게 처신하여야만 한다. 49년생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롭다. 61년생 판도를 좌우할 정도로 중차대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73년생 여건이 조성되면서 전체적으로 호전된다. 85년생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도 괜찮으리라. 행운의 숫자 : 16, 64

寅 38년생 지속성이 득리로 이끌 것이다. 50년생 어려움은 경험의 밑천이 될 것이다. 62년생 지난날의 영화를 회복하는 운세로 볼 수 있다. 74년생 효과를 보지 못 하리라. 86년생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을 것이니 버리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54, 17

卯 39년생 상당한 재산이 들어오거나 영광스러운 일이 보인다. 51년생 의미 있는 하루가 전개 될 것이다. 63년생 확실히 끊고 맺어야만 후환을 없앨 수 있다. 75년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하느니라. 87년생 일방적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행운의 숫자 : 61, 12

辰 40년생 성과는 미미할지라도 그 의미는 대단히 크다. 52년생 진전이 있으리라. 64년생 점점 부드러워질 것이다. 76년생 조짐이 심상찮으니 미리 대비해 둘 필요가 있다. 88년생 사정을 잘 헤아려서 처리하지 않으면 곤혹스러워진다. 행운의 숫자 : 56, 69

巳 41년생 아직도 흉운이 도사리고 있다. 53년생 본래의 취지를 희석시키지 말라. 65년생 기본적인 것은 그대로 유지해 나감이 옳다. 77년생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낫다. 89년생 새로운 세계에 깊이 빠져들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83, 60

午 42년생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54년생 한 가지 일에 전념하라. 66년생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이롭다. 78년생 점점 더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니 감안하고 임하라. 90년생 쾌도난마 한 후에 명확하게 처리 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62, 33

未 43년생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 55년생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낫다. 67년생 아예 차지하고 소신대로 임할 바이다. 79년생 먼저 파악하고 있어야 유리하다. 91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는 큰일을 당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9, 87

申 44년생 지나치다면 역효과를 낳는다. 56년생 술은 괼 때 걸러야 하느니라. 68년생 마음의 관심보다는 실제적인 관리가 더 중하다. 80년생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과는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92년생 연결 고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9, 83

酉 45년생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57년생 반복적인 경향의 애로 사항이 보인다. 69년생 이미 주어진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옳다. 81년생 과거의 인식은 버려라. 93년생 길흉이 마주 대하고 있으니 신중 하라. 행운의 숫자 : 53, 43

戌 34년생 더 할 수 없이 경사스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느니라. 46년생 지속 가능한 것에 주력함이 무방하다. 58년생 기민한 감각을 동원해야 할 때이다. 70년생 절실히 바라던 일이 흡족하게 이루어지겠다. 82년생 살피고 물어 보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52, 86

亥 35년생 역할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47년생 지나칠 뻔한 것 속에 귀중함이 있다. 59년생 흉과 복이 반반이니 의연히 대처하라. 71년생 액땜할 일이 보이니 매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83년생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40, 6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